

◎ 興德王陵碑片三個發見

五月十三日 慶州中學校鄭 銑先生과 崔禎苾 洪再善兩君에 의하여 同陵 龜趺周邊에서 大小三片이 收拾되었다.

- (1) 口歲「田苗口」乃疲(一三×二二cm)
- (2) 行「奉(九·〇×一〇·五cm)
- (3) 皇「木(七·五×七·五cm)

◎ 慶州佛像의 調査

滯韓中의 馬蘭樹(Kurt Robert Matusch)夫妻 一行은 五月十五日부터 十八日까지 四日間 慶州博物館을 비롯하여 南山全城과 斗笠里磨崖佛 仙桃山三尊像等을 調査하였는데 朴泳道氏가 同行하였다.

◎ 慶北大의 古書書展覽會

開校十週年을 紀念하여 同校博物館에서 (五月二五日—二九日)開催되었다는바 出品點數는 合計四三點

刊 行 物

「梨大史苑」第四輯(四月二十日發行)揭載論文

孫景穂：韓國十二支生肖의 研究

Mrs. Harriet C. Matusch(馬蘭樹夫人)著：Ornamental Roof Tiles of Korea  
東亞出版社 四月 十五日刊 九、〇〇〇卷

石窟庵 通信 (五)

鄭 明 鎬

雨期를 앞두고 假屋蓋 工事は 五月末日로서 完成되었고 從前의 벽집은 撤去하

第三卷 第六號 通卷二十三號

로서 外觀을 一新, 이 工事로 말미암아 石窟自體의 被濕을 防止함과 同時에 將次의 本工事に 對備케되었다. 벽집 外被를 除去하므로서 窟內의 溫濕의 差度가 縮減되는 現象이 먼저 注目되어 調査를 進行中, 寺址發掘은 小規模로 繼續中인데 現庵前方에서 舊河床을 追跡하였으며 既出의 建物址後方에서는 五月二五日 佛像彫刻片一點 二六日에는 地下二尺에서 完形의 高麗靑瓷杯一點 (그中一點은 入絲된 優品)이 發見되고 다시 그 밑에서 瓦積層이 露出되었다. 石窟後方의 排水工事も 順調롭게 進行되어 水位는 계속 降下되고 있으며 岩壁側에서 새로운 湧水處가 發見되므로서 石窟側에서의 湧水現象은 減退 乃至 停止되어 가고있다. 氣象測候는 서울氣象臺에서 새로借用된 移動溫濕器에 의하여 補強하였다. 六月二日 慶北大博物館長一行三名 上窟一泊하고 現場視察.

— 第三卷 第七號 通卷二十四號 —

鬱陵島搜討官關係碑 一一

李 弘 植

一九三七年(日帝昭和十二年)十一月二十日 鬱陵島 道洞 築港工事場에서 碑石二個가 發見되었는데 두 個가 다 搜討官의 踏驗記이며 筆者에게는 解放後入手된 拓本이 있어서 여기에 그 全文을 紹介하고자 한다. 이 拓本은 日帝時代 初期의 慶州博物館長을 했던 諸鹿央雄이 藤田亮策教授에게 보낸것인데 그 拓本中 一枚에는 다음과 같은 同人의 自筆로 推測된 手記가 있어서 그 發見場所가 明示되어 있다.

昭和二一、一一、二〇、鬱陵島道洞築港工事場舊漁業組合倉庫跡發見二個內其一

昭和二三、七、二二手拓